

외국산 옥두어·문어가 국내산으로 둔갑

제주자치경찰,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15곳 적발 중대 사안 11곳 검찰 송치·4곳 행정시 과태료 요청

옥두어를 옥돔으로, 필리핀산 문어,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 유채꽃주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 및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2월 2~20일)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업체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곳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 조치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거짓 표시 6, 미표시

4) ▷식품 표시·광고 위반 1건(식품명·성분 등 거짓 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가격표 거짓 표시 2,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2) 등이다.

위반 사례는 외국산 수산물과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주를 이뤘다.

일부 업체는 필리핀산 문어, 중국산 김치 및 고춧가루, 유채꽃주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적발된 식당 2곳은 옥돔과 외형이 유사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고가의 어종으로 속여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올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공동주택서 불... 15명 대피 소동

제주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나 20분여 만에 꺼졌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7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가 난 공동주택은 8층 건물로 이층 3층 원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연기를 흡입한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신고 접수 20분여 만인 낮 12시 58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직 경찰 복직 한달만에 강제추행 혐의 입건

현직 경찰이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해당 경찰은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으로 중징계를 받고 최근 복직했으나 한달 만에 또다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귀포서 소속 A순경(40대)이 강

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에 대한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다.

A순경은 지난달 25일 오전 3시 15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다.

앞서 A순경은 2021년부터 존속폭행·무전취식 등으로 경장에서 순경 서귀포서 소속 A순경(40대)이 강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매년 1000여명 사상

2021~2024년 2776건 발생... 47명 숨지고 4101명 다쳐
최근 5년 65세 이상 운전면허 가진 반납률 2%대 그쳐

제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매년 1000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운전면허 가진 반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제주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가 잇따르며 운전면허 가진 반납이 시급한 실정이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65세 이상 가해자 선박계류장 일부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오후 1시 21분쯤 제주시 일도2동에는 공사장 간판이 떨어졌고, 1시 34분쯤 오라2동에서는 공사장 펜스 일부가 탈락했다.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보목동에서도 강풍으로 인한 간판 탈락 피해가 이어졌다.

한편 전날 오후 12시 50분부터 이날 밤 9시까지 제주공항에는 급변풍(이·착륙방향) 특보가 발효됐다. 제주와 완도, 모슬포, 마라도 등을 오가는 선박 13척이 결항되는 등 뱃길에도 차질이 따르고 있다.

다. 차량단독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사상자 대비 비중이 높았다.

올해도 제주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며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쳤다. 이에 앞선 지난 23일에는 80대 남성 B씨가 몰던 차량이 제주시 소재 한 주민센터로 돌진하며 운전자가 다쳤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 가진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이뤄진 고령자 운전면허 가진 반납자는 31만8962명(연평균 6만3792.4명)중 6741명(1348.2명)으로 연평균 2.1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만3685명중 1004명(반납률 1.87%) ▷2022년 5만8585명중 1330명(2.27%) ▷2023년 6만3559명중 1421명(2.05%) ▷2024년 6만8648명중 1421명(2.06%) ▷2025년 7만4485명중 1682명(2.25%)이다.

우도 2172가구 순간 정전

우도에서 저녁 시간대 강풍으로 인한 고압선 단락으로 정전이 발생,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었다.

27일 제주소방안전본부,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26일 오후 7시35분쯤 우도면 연평리 소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선이 끊어져 화염과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로 인해 우도 내 2172가구에 '순간정전'이 발생, 전력 공급이 일시 중단됐다. 이어 다음날인 27일 오전 시간대에 미복구됐던 229가구와 우도등대 등에 대한 복구가 완료됐다.



강풍에 무너진 안전막 제주 전역에 강풍경보가 내려진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인근 공사장에 설치된 안전막이 강한 바람에 뒤틀려 넘어져 있다.

불법 촬영 50대 법정 구속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들을 수차례 불법촬영한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갖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22회 걸쳐 대형마트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가로등 넘어지고 뱃길은 막히고...

강풍 피해 잇따라... 선박 13척 줄줄이 결항

제주 전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기상 관련 피해 신고 28건이 접수됐다.

이날 오전 7시 32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오후 4시 19분쯤 제주시 외도1동의 한 건물 외벽에 있던 외장재가 강풍에 의해 떨어져 소방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서귀포시 대정읍, 중문동, 안덕면과 제주시 조천

읍, 노형동, 해안동, 연동 등에서도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오전 11시 32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가로등이 전도되고, 오후 3시 20분쯤 우도에서는 전신주가 전도됐다. 오후 3시 35분쯤 제주시 구좌읍에서는 신호등 구조물 일부가 탈락해 소방이 출동했다.

오후 2시 42분에 연동에서는 강풍으로 현관문 유리가 파손되는가 하면 곳곳에서 전선과 통신선이 늘어지는 피해가 잇따랐다.

제주시 구좌읍에서는 오전 10시 26분쯤에 이어 오후 1시 2분쯤에도 선박계류장 일부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오후 1시 21분쯤 제주시 일도2동에는 공사장 간판이 떨어졌고, 1시 34분쯤 오라2동에서는 공사장 펜스 일부가 탈락했다.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보목동에서도 강풍으로 인한 간판 탈락 피해가 이어졌다.

한편 전날 오후 12시 50분부터 이날 밤 9시까지 제주공항에는 급변풍(이·착륙방향) 특보가 발효됐다. 제주와 완도, 모슬포, 마라도 등을 오가는 선박 13척이 결항되는 등 뱃길에도 차질이 따르고 있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획 줄어듦→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땃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서귀포시 상호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묘목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혐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굴묘목

▲유라조생 2년생 4년생
▲천혜향 2년생 3년생
▲궁천 3년생
·황금향 ·레드향 ·한라봉
그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